

소망의 달  
선교주일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wooyoun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생기야 사망에서 와서... 불어서 살아나기에 하나님” 에스겔 37:9

성 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박진성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이사야 45:1-7  
**하나님 앞에 겸손할 이유**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 헌신과 나눔

봉 헌 / 구은강 집사, 최내권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 삶과 세상으로

\* 보냄의 찬양 / 이 땅의 황무함을 (부흥)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갈라디아서 3:23-29

믿음으로 누리는 자유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4월은 “소망의 달”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2021 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붙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2. 선교주일이며 금주는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3. 주일예배 예배를 CDC와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zoom 과 CUMC 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와 지혜를 모읍시다.
4. 2세 신앙교육 E-Learning 의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 교육을 위해 기도합시다.
5.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 / 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씩시다.
6. 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7. 전진과 비전 전도를 통한 성장, 2세 고등부 전도사와 사역지 이전을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8. 치유, 회복, 나눔의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4월의 사역 - 선교 주일(25), 선교 주간(25-5/1), 어린이 주일(5/2)

♥ 생일 축하 ♥ 고순제(14) 장영현(16)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4/25	5/2	5/9	5/16
	박진성집사	구민집사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주일헌금위원	4/25	5/2	5/9	5/16
	최내권집사/구은강집사		유덕하집사/홍정임집사	
주일안내위원	4월	5월		
	최내권집사	구민집사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 이사야 43:14-21

인생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아 고난과 연단을 자초할 때가 많다. 죄와 허물, 세상의 악 때문에 전쟁포로로 살던 이스라엘은 정해진 연단의 시기가 끝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70 년의 연단과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왕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의 축복을 누렸다. 우리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훈련을 마치면, 고난 끝에 찬란한 빛을 발견한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된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강한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마주한 연단이나 고난은 우리가 누릴 승리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자.

### 하나님 앞에 겸손할 이유 / 이사야 45:1-7

경험, 이성,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면?

유다 백성은 다윗왕조가 영원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멸망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방인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이였다.

사람은 제한적이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다.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이유 / 이사야 45:1-7**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한다 (이사야 45:1).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불가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뿐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메시아가 기름부음을 받는다.

이방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린 이유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로 구별되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정복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였다. 그 이방인이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는 것 역시 알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일제국을 건설한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했다. 그의 칙령과 후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공사를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지만 당시 이사야의 예언을 듣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납득하지 못했다. 유다가 왜 망하는지, 유다가 망한 후에 하나님은 왜 이방인을 높이 들어 쓰시는지, 왜 선민들이 이방인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는지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 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 우리의 제한성과 유한함을 기억해야 한다. 반면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와 그 뜻에 승복하고 우리를 낫출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첩경이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부모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부모도 배워야 한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알아서일까? 성경에서 부모와 어떻게 동행하셨고, 부모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자손손 알리는 말씀을 보면 ‘아, 내가 아는 그 말씀이구나. 그렇지. 예수 믿는 부모라면 그래야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들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어디에 돈을 쓰고, 무엇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지 알면 말씀을 알면서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분의 자녀를 키우는 청지기이지만, 자기 자신과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부모의 끈질긴 노력과 훈련과 몸부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우리는 부모의 사명을 다하고자 얼마나 몸부림쳤던가!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부모의 삶이 이러하면 네 자녀는 이러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많다. 부모로서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말씀들이다.

그러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호 4:6)라는 말씀을 읽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부모인 내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소중한 자녀들을 잊어버리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잊지는 않았지만, 혹 잊은 것처럼 살지는 않았는가.  
**부모의 삶은 반드시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모 교육은 크게 ‘부모 자신을 교육하는’ 부모 교육과 ‘자녀를 기르는 방법을 교육하는’ 부모 교육으로 나뉜다.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전자가 되어 있지 않는데 후자를 교육하는 것은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중요한 것을 쏟아붓는 것과 같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기 전에 또는 적어도 자녀를 교육할 때 자신이 먼저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 받은 뜻과 고귀한 자녀들의 은사와 장점을 살피지 않고 살려내지도 못한 채 공부만 강요하고,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다 잘될 것처럼 아이들을 몰아세우더니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누구인가?’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아이들을 본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대학에 가서 늦은 사춘기를 겪는다.  
 어린 10대가 아닌 20대에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의 일탈은  
 훨씬 다양하고 파괴적이다. 그 일을 겪어본 부모들은  
 그런 고생이 없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자녀들의 참 주인이자 부모는 하나님이다.  
 부모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요 양부모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위탁 부모이다. 그러므로 세상과 자녀에  
 매인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사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염려하다가 세상에 매여버린  
 고단한 삶을 살기 위해 부모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을 자녀에게 전하며  
 ‘동역과 상속의 삶’을 살기 위해 부모가 된 것이다.

박인경, 『부모 면허』



“...너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성공하면 너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성공하면 너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성공하면...”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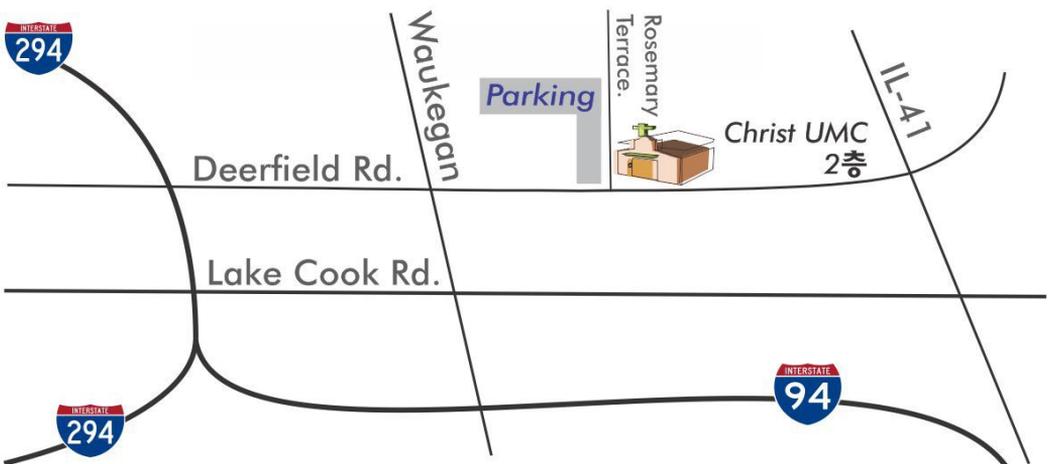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